

제7회 민통선 예술제 開幕

생태·평화·생명의 메시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연천 군민회관 광장에서 민예당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철원노동당사, 백학면 석장리 미술관에서 제7회 민통선예술제를 개최한다.

민통선예술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천군, 연천문화원 등에서 후원하는 민통선예술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으며 지난5월에는 작은 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민통선예술제의 특징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DMZ가 오늘날 인류사회에 던지고 있는 화두, 생태, 평화·생명의 메시지를 예술의 힘을 빌려 널리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생태·평화·생명이란 개념을 예술제의 주제로 선택했으며 공연, 깃발전, 퍼포먼스, 시, 음악

회 등으로 구성된 예술제는 인간의 한을 자정시키고 마침내 평온을 되찾은 기운을 빌려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는 12일 군민회관 광장에서 민예당길놀이 공연에 이어 3년에 걸친 예술제 사진과 주제를 악을 소재로 하는 하이라이트 영상쇼, 해금연주, 락밴드연천피아/연천하모니 개별 및 합동공연등 극단, 춘, 뮤지컬, 년스스렘보리, 공연이 계획되어 있다.

극단춘의 뮤지컬 년스스렘보리 공연은 여섯 수녀들의 유쾌한 수다와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인간적인 '끼'의 발산을 통해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매우 감성적임을 느끼게 해 주는 매우 감성적인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연천군민회관 광장에서 민예당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철원노동당사, 백학면 석장리 미술관에서 제7회 민통선예술제를 개최한다.

공연이다. 13일은 철원 노동당사에서 야단법석의 난타공연, 한영에 '곤충들의 위령제' 등이 개최되고 백학

면 석장리에서는 우리소리 우리무용 안성근, 김수연 공연 등 각종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일출민 양주시장은 8일 남방하수처리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남방4동 마을회관에서 열린 도시가스 개통식에 참석 중순식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대장은 사랑의 우편 배달부’

부하장병들에게 매주 1통씩 사랑의 편지 배달



매주 금요일 부대원들에게 편지쓰고 있는 최중령.



대대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보고 기뻐하는 병사들.

28사단 예하 천동연대 초석 대대장이 부하장병들에게 쓰는 마음의 편지가 병영에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중령은 지난해 3월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매주 한 통씩 부대원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데 현재까지 74통의 편지가 부대원들에게 배달됐다.

매주 금요일 부대원들은 이번주에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대대장이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기다린다.

대대장의 편지는 그 내용도 다채롭다. 한 주간 부대에서 있었던 일, 다음주에 해야 할 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인생의 선배로서 각종 조언, 청한 코너와

축하메시지 등 병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대대장의 이런 사랑과 정이 담긴 편지들은 부대의 화합과 단결력을 한층 향상 시켰으며 올 전반기에 사단내에서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병영문화정착에 기여한 'Best Green 28' 우수 대대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대장의 사랑의 편지를 통해 이제 초석부대원이라면 '모두 사랑하는 대대원 여러분!'이란 문구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다.

언제나 즐겁고 밝은 병영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지휘관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편지내용 그대로 부대는 웃음과 신뢰가 넘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6년도 신지식인 선발 대상자 신청

연천군 오는 17일까지 총무과에서 접수

연천군은 2006년도 신지식인 선발 및 포상계획에 의해 오는 17일까지 선발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분야별 신청대상자는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특허, 근로, 교육, 문화예술, 가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면 가능하다.

자격요건으로는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을 공유해 해당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소정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8월 17일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심사는 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용성, 방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헌성을 기준으로 하며 포상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선정된 지식인은 인증서 및 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편, 김규배 연천군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인간상 정립과 국민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매년 신지식인을 선발 포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총무과 혁신분권부(☎031-839-2092)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생업기술센터 양주시생활개선회(회장 조옥자)는 4일 수해를 입은 평창군 생활개선회에 숙وت, 양말, 된장 등 80여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온정의 손길로 수해지역 복구 지원

동두천시는 4일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인력지원단(40명)을 구성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안성시 가현동을 직접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침수 가정집에 대해서는 도배와 장판 작업 등 복구사업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시청공무원과 통합협의회, 중앙동의 이웃사랑회, 동두천시개인택시조합에서 미용비누와 가루세제, 장판, 도배용품 등 98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

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98년과 99년도 집중호우시 전국 각지로 부터 지원을 받은바 있어 보은의 기회로 삼고 수해피해가 많았던 강원도 평창군과 인제군의 수재민을 돕기위해 지난 7월25일부터 30일까지 기간중 공무원 및 각종 사회단체 등이 성품 전달 및 250여명의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등 수재민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시는 4일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인력지원단(40명)을 구성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안성시 가현동을 직접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침수 가정집에 대해서는 도배와 장판 작업 등 복구사업을 지원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모집

2007년 시설관리공단 17일까지 방문 접수

양주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7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이사장후보 모집공고 및 선발기준, 면접심사 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해 심의를 갖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모집에 들어간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모집은 2007년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결비한 참신한 이사장 후보를 모집한다.

이사장 후보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하며 지원자격은 종업원 2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 또는 상임임원의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와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이사장 후보 지원자는 시 홈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 8월14일부터 17일까지 방문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총무과 031-820-214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서면 우수지도자 김도년·백상인氏 시상

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장 순회 간담회

연천군새마을협의회는 3일 신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로 경기도협의회 회장(김기원)과 기획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연천군새마을회장(홍영표) 및 군·읍·면협의회장 12명, 신서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9명, 군부녀회원 4명등 관련자가 참석했다.

새마을 지도자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내 우수 지도마을을 선정

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신서면 간담회는 신서면 새마을협의회 지도자중 우수 지도자를 선정하여 지도자 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수상자로는 대령2리 지도자인 김도년씨와, 도신5리지도자인 백상인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서면 특색사업인 휴경기 경작, 사랑의 연탄 나누기, 소외계층 집수리등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토의하기도 하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올해는 동막골 유원지로 오세요!



얼마전 영화제목과 동일한 지명으로 유명해진 연천을 동막골 유원지가 그곳이다. 얼마 전 내린 장마비로 계곡의 물도 충분하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어른들은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피서지이기도 하다.

동막골(내산리)은 약 571.211㎡의 넓은 면적의 계곡으로 맑은 물이 깊은 계곡을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고 계곡 주변에는 기암괴석과 자연림이 어우러져 자연의 신비함을 더해준다. 대부분 지역의 수심이 낮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거의 없으며 가족단위 관광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낚시

를 즐기는 어른들의 견지 재미가 솔솔하다.

동막골 유원지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로 주변상가등에서 민박을 겸하고 있고, 야영이 가능하여 알뜰한 피서를 원하는 도시민에게는 더할 수 없는 피서지이다.

▶대중교통 : 통일호 열차 및 버스이용하여 전곡하차-동막리행 버스탑승-동막리.

▶자가이용 : 3번국도를 따라 전곡도착-연천방향-동막사거리에서 우회전-동막리계곡/ 37번 국도를 자유로-문산-과주-전곡-연천방향-동막사거리에서 우회전-동막리계곡.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軍이 우리 아들 살렸어요”

신속한 초동조치로 동원예비군 생명 구해



동원훈련 기간에 위급한 상황에 빠졌던 한 예비군이 군부대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대응으로 생명의 위기를 넘긴 사실이 전해져 병영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26일 새벽 2시경, 육군 65사단 예하 포병대대 동원훈련에 참가했던 박 종현(30, 예비역 병장, 서울시 도봉구)씨는 취침 중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당시 불침번 근무지였던 현역 최연민 이병은 박 종현씨가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당직계통으로 보고하였으 며,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군 의관은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박씨를 국군 양주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국군 양주병원에서 혈액검사와 X-ray 진단 결과 박 씨의 병명은 위천공(胃穿孔)으로 인한 급성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해야 할 긴급한 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양주병원에서 도착한 박 종현씨 부모 의사에 따라 신속히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의료시설인 의정부 성모병원을 후송, 당일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박 씨는 현재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며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다.

65사단 군의관 박 성기 대위는 “위천공에 의한 급성복막염은 위벽에 구멍이 생기고 긴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는 병으로 발병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씨의 아버지 박성식(53)씨는 “아들이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아마도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부대에서 신속하게 조치해줘서 아들이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부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편지를 쓰며 아들을 직접 면회한 대대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대장 배인근 중령은 “예비군들을 현역과 똑같이 제 부하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면서, “박종현 예비역 병장이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며 박종현씨의 부모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시보건소 미꾸라지 방류

동두천시보건소는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방역의 일환인 미꾸라지 방류를 2006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하여 실시했다.

2005년 시범으로 신천과 상패천에 방류하여 미꾸라지로 인한 모기 발생효과를 측정된 결과 유충구제에 살포와 병행시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2006년에는 신천과 상패천 뿐 아니라 소하천 13개 소, 웅덩이 35개소로 확대하여 6월 5일 1차로 300kg를 방류한데 이어 8월 1일 500kg를 추가로 방류했다.

미꾸라지는 하루에 모기 및 깔따귀 유충을 하루에 약 1천100여마리를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 곳에서 방류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생육실험이나 효과의 측정 없이 실시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